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3.12.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TPP로 무관세 쌀 수입 가능성... 중국 등
FTA국 개방압력 거세진다.

(‘13.12.4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쌀에 대한 관세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문제가 발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정부는 11.29(금)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‘관심 표명’을 결정하고, 현재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중임
- 예비 양자협의를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,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
 - 향후 양자협의 과정에서 TPP 참여국들이 제시하는 참여 조건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, 다음 단계인 TPP ‘참여선언’을 보류하고 양자협의를 지속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
 - 특히, 쌀 문제와 TPP 참여문제는 별도의 문제로서 쌀 문제에 대해서는 양허제외가 정부의 기본입장임

※ 관련 문의 :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(02-2110-4792)